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중심으로*

The Protestant Hym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and the Making of Modern Nation State – Focused on *Chanmiga* 『讚美歌』(1908) Translated by Yun Chi-ho

조경덕 (Kyoung-Duk Cho)**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that Christian hymnody played in the task of creating a modern nation stat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through Yoon Chi-ho's translation of *Chanmiga*(1908). Yun Chi-ho's *Chanmiga* was an early public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hymnbooks. Among protestant hymnals, Yoon's *Chanmiga* is unique. First, it is a booklet with 15 songs. The hymnal produced by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es in the same year contained 317 songs. It was intended for use in a mission school rather than for church use. Second, there are privately produced hymnals. With the exception of Underwood's hymnal(1894), other hymnals were usually created by denominational hymnal committees, which Yun Chi-ho's knowledge of English and national language skills made possible. Third, "Korean national anthem" were included. Three of the 15 songs are anthems. At the time, Christianity was closely associated with nationalism. Yun Chi-ho sided with Japanese imperialism in the last days of the colonial period, so some researchers deny the nationalist character of *Chanmiga*. However, it would be unfair to judge his entire life by his later actions. Yun Chi Ho wrote *Chanmiga* from a nationalist position. And readers at that time sang together their Christian faith and loyalty to the country through *Chanmiga*.

Key words: Yun Chi-ho, *Chanmiga*, Hymn, Korean national anthem,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 2023년 11월 10일 접수, 11월 27일 게재 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평택대학교의 학술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평택대학교(PYEONGTAEK UNIVERSITY) 피어선칼리지 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oldjacob@ptu.ac.kr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근대 국가 만들기가 당면 과제였던 근대 전환기에 윤치호가 역술(譯述)한 『찬미가』(1908)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 찬송가는 천주교의 천주가사에서 시작한다. 천주가사의 처음은 1779년 이벽(李穡)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와 정약전(丁若銓)의 「십계명가(十誡命歌)」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200여 종이 전승되고 있다. (민경배, 1997:59) 최초의 개신교¹ 찬송가집은 천주교 찬송가 편찬 이후 100여 년이 지나 1892년 북감리교 선교부에서 간행한 『찬미가』다. 그 이후로 찬송가집은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 등의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감리교는 찬송가집 제목을 주로 ‘찬미가’로 하였고 장로교는 ‘찬성시’로 하다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찬송가』를 간행하였다. 당시 간행된 찬송가집은 한국 초기 기독교의 선교·신앙 상황과 근대 전환기의 민족 정서 그리고 한국 어문의 형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다.

찬송가집에 관한 연구는 교회사, 음악사 측면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문학사 기반 위에서 찬송가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도한 이는 김병철이다(김병철, 1975). 그는 ‘번역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주로 관심을 가진 텍스트는 한국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간행된 찬송가집들이다. 그는 이 찬송가들의 번역자와 원 노래 제목 등을 밝히는 기초적이면서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박재훈의 『찬송가 작가의 면모』(서울 전도사, 1955-1958)와 사이토 다케시(齋藤勇)의 『讚美歌研究』(研究社, 1962)를 참고하여 초기 개신교 찬송가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찬송가집에 동일하게 실린 찬송가를 늘어놓고 번역 양상을 살폈으며 초기 한국 찬송가가 초기 애국 가사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 가사들이 그 형식적 측면에서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김병철이 사이토 다케시의 연구를 주목하고 우리나라 찬송가 연구의 주요 참고서로 활용한 것은 일본이 경험했던 근대 전환기 기독교와 우리의 그것이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박선희는 메이지 시대 창가집인 『幼稚園唱歌集』(1887), 『尋常小學唱歌』(1911)등을 분석하여 메이지 시대 창가 탄생과 더불어 일본 근대 음악이 ‘국민 창출’의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 초기 기독교는 근대 국민 창출이라는 메이지 이데올로기의 환경 속에서 찬송가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메이지 정부는 가치 표상의 전달 도구로써 찬송가를 수용했다고 평가한다(박선희, 2016). 이 부분은 우리 근대 문학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민 창출’의 이념을 담은 『독립신문』의 애국 가사들의 상당수가 찬송가의 가사나 곡조의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1)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괄하는 용어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행에 따라 개신교를 기독교라 표현하겠다.

는 많은 경우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었다. 기독교 이념이 일본 제국주의와 충돌했기 때문이다(장규식, 2001). 흥미로운 것은 당시 간행되었던 찬송가집 중, 애국가와 찬송가가 함께 실린 책이 있다는 점이다. 그 찬송가집은 바로 윤치호의 『찬미가』(광학서포, 1908)이다.

II. 윤치호의 『찬미가』(1908)

윤치호(尹致昊, 1864-1945)는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였고 동인사(同人社)에서 2년간 공부했다. 1883년에 귀국하였고 갑신정변 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운영하는 중서서원(中西書院)에서 3년간 공부하였다. 그는 1887년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이후 중서서원의 원장 알렌(Allen) 박사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남감리회 소속의 벤더빌트(Vanderbilt) 대학, 에모리(Emory) 대학에서 공부했다(조서운, 2018). 1895년 귀국하여 학부 협판이 되었으며 1898년 2월 서재필을 이어 독립협회 회장이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사퇴한 후, 1906년 장지연, 윤희정 등과 대한 자강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그 해 10월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임받아 개성에 한영서원(韓英書院)을 설립하였다. 1912년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검거되어 3년간 수감 생활을 겪고 1915년에 석방되었다. 출옥 후 YMCA의 총무와 회장으로 활동했고 송도 고등 보통학교와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상무 이사와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이사로 친일 활동을 하였으며 1945년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윤경남, 2017). 윤치호는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를 한 선각자이며 독립 운동에 힘썼으나 후에 친일 활동을 하였다.

윤치호는 1908년에 『찬미가』 재판을 간행하였다. 윤치호의 『찬미가』 표지에는 가운데에 제목, ‘찬미가’가 표기되어 있으며 책 뒤 판권지에는 “隆熙二年六月二十日再版印刷/隆熙二年六月二十五日發行”으로 간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1908년에 재판이 발행되었다는 것인데 초판 간행 연도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한 ‘譯述者 尹致昊’로 저자명과 역할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 이외 판권에 대한 정보로 “發行者 金相萬 / 印刷所 塔印社 / 發賣所 廣學書舖”가 있다. 정가(定價)는 ‘二錢五厘’이다. 기독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우선 곡이 15곡 들어 있는 소책자다. 1905년에 간행된 감리교의 『찬미가』가 182곡, 1908년에 간행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가 317곡을 수록한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단출한 찬송가집이다. 둘째, 책을 만든 이가 개인이다. 1894년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를 제외하고 다른 찬송가집은 대개 교파 찬송가 위원회가 만들었다. 셋째, ‘애국가’ 류의 찬양이 포함되었다. 수록된 15곡 중에 3곡이 국가와 황제를

찬양하는 ‘애국가’이다.

노동은은 음악사가의 시각에서 윤치호의 『찬미가』를 다루었다. 그는 『찬미가』가 ‘민족적 형식에다 기독교 신앙 고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 찬송가를 창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노동은, 1995:713). 민경배는 교회사 차원에서 당시 여러 개신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를 주목했다. 그는 윤치호가 “애국의 충정에다가 그 스스로 운문하여 그래도 내놓을 만하다고 해서” 『찬미가』를 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찬미가』에 애국가 류 세 곡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나라의 비극과 고난과 더불어 동행하였다. 따라서 교회 찬송가와 충군(忠君)의 역사는 “영커 혈맥을 이루었다”(민경배, 1997:74)고 말하며 윤치호의 『찬미가』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숙은 윤치호의 『찬미가』는 적은 편수의 찬송가를 담고 있지만 애국가 류가 포함되어 있어 “초창기 한국 교인들의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찬송가”라고 평가한다. 또한 현재 불리는 「애국가」가 최초로 수록되어있는 귀중한 찬송가집임에도 감리교에서 공식 간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한다(김영숙, 1998). 조서운은 윤치호가 서구식 문명화만이 19세기 말의 조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했다. 그는 찬송가 가사 15곡의 내용을 곡조와 함께 분석하여 살피며 윤치호의 『찬미가』는 민족의 사명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조서운, 2018). 이와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강효백은 애국가가 포함된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본 기독교 협회에서 펴낸 『찬미가』(1903)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말한다(강효백, 2021:254).

윤치호의 『찬미가』는 당시 찬송가집과는 달리 ‘애국가’ 류의 노래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독교 정신에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 논리가 결합된 것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체제가 일본 메이지 시기 찬송가집의 체제를 모방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후자의 평가는 오늘날 부르는 ‘애국가’의 작사자 논쟁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 바탕에서 윤치호의 『찬미가』(1908)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 3편을 분석하고 그 3편이 수록된 의미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윤치호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그의 친일 경력과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일기에 쓰여진 그의 정세(政勢)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윤치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치호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부당한 점이 있다. 『찬미가』를 간행할 무렵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는 한영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대한 자강회의 회장이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규정한 「의회통용규칙」을 잡지에 싣고 일제에 대한 비판이 담긴 우화집, 『우순소리』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3-40년대 그의 친일 경력이 이 시기의 행적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기는 개인의 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적 활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옆두에 두고 윤치호의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 류의 특징과 그것이 근대 전환기에 가졌던 의미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I. 윤치호 『찬미가』의 구성과 애국가류

『찬미가』에는 모두 15장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다. 각 찬송가에는 곡조 명인 ‘Tune’과 곡명이 표기되어 있다. 『찬미가』에 수록된 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ontents *Chanmiga* Translated by Yun Chi-ho

순서	곡조 명(Tune)/ 곡명	『21세기 찬송가』 수록 곡명
1	AMERICA / KOREA	
2	JESUS, LOVER OF MY SOUL	비바람이 칠 때와(388장)
3	NICAE/ HOLY, HOLY, HOLY	거룩 거룩 거룩(8장)
4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352장)
5	HARK THE HERALD ANGELS / CHRISTMAS	천사찬송하기를(126장)
6	THE MORNING LIGHT IS BREAKS ANEW	예수의 전한 복음(264장)
7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어둔 밤 쉬 되리니(330장)
8	MY FAITH LOOKS UP TO THEE	못 박혀 죽으신(385장)
9	ONWARD, CHRISTIAN SOLDIERS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351장)
10	AULD LAN SINE/PATRIOTIC HYMM NO.III	
11	BLEST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221장)
12	HOW FIRM A FOUNDATION	
13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481장)
14	AULD LANG SINE/PATRIOTIC HYMM	
15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	저 북방 얼음산과(507장)

언더우드가 1894년에 간행한 『찬양가』를 제외하고 당시 찬송가집이 대개 그렇듯이 『찬미가』에도 악보가 없다. 대신 가사가 적혀 있는 본문 상단에 제목과 함께 곡조명이 병기되어 있다. 예컨대 제1장은 “KOREA/ TUNE AMERICA”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래 제목은 ‘KOREA’, 곡조 명(TUNE)은 ‘AMERICA’라는 것이다. ‘AMERICA’는 영국 국가의 곡조이며 현행 찬송가 「괴난처 있으니 환

란을 당한 자 이리오게』의 곡조이기도 하다. 이름이 하나만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곡조 명이 아니라 노래 제목으로 보면 된다.

『찬미가』는 윤치호의 ‘역술(譯述)’이지만 그것은 12개의 찬송에 해당하고 3개의 애국가 류는 윤치호의 ‘작(作)’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14장 ‘애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와 같아 작사자가 누구냐는 논쟁이 뜨겁다.² 1908년에 간행된 『찬송가』가 317곡을 수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미가』의 12곡은 윤치호가 매우 엄선한 찬송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찬미가』 수록곡 15곡 중, 제1장, 제10장, 제14장은 ‘애국’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찬미가』 수록 찬송의 순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 배열되었는가다. 우선 ‘애국’ 내용을 담은 노래는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1장, 10장, 14장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KOREA’를 제1장에 배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내용을 지닌 국가(國歌)를 맨 처음에 놓은 것이다.

제10장의 곡명은 ‘PATRIOTIC HYMN NO. Ⅲ’이고 곡조는 ‘AULD LANG SINE’, 제14장의 곡명은 ‘PATRIOTIC HYMN’, 곡조는 ‘AULD LANG SINE’이다. 제10장과 14장의 곡명과 곡조는 같은 셈이다. 곡명은 둘 다 애국가(PATRIOTIC HYMN)다. 제10장에 ‘NO. Ⅲ’가 부기되어 있는데 번호를 부여할 만큼 애국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 가운데 10장과 14장을 선별하여 올린 것 같다. 곡조는 우리에게 「석별의 정」의 곡조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ine’이다. 현행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곡조이기도 하다.(조서윤, 2018:256) 이 세 애국가 중, 제1장과 제14장은 이 찬송가집에 처음 실린 노래이며 제10장은 일명 ‘무궁화가’로서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자에 이미 실린 노래다. 우선 제1장과 제14장을 분석하고 제10장과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를 비교·분석하면서 윤치호의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의 의미를 논하기로 하겠다.

2) 이러한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것은 윤치호의 친일 이력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가 지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를 납득할 만한 확증된 자료는 아직 없다. 1890년대부터 여러 애국가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집단으로 창작된 경향이 있으므로 「애국가」는 한 개인의 작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는 형편이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PATRIOTIC HYMN

데— KOREA / TUNE AMERICA 664.6464	데十四 PATRIOTIC HYMN /TUNE AULD LANG SINE
— 우리 황상 폐하/턴디일월갓치/만수무강/산높고 물고흔/우리대한데국/하나님도오사/독립부강 二 길고긴양업은/룡홍강푸른물/쉬지안 듯/금강천만봉 에/날빛찬란함은/태극기영광이/빗취난 듯 三 비단갓흔강산/봄꽃가을달도/굽거니와/오곡풍등하 고/금옥구비하니/아세아락토가/이아닌가 四 이천만동포난/한맘한뜻으로/직분하세/사육은바리 고/총의만압세워/님군과나라를/보답하세	— 동해물과백두산이/말으고달토록/ 하나님이보호하사/우리대한만세 二 남산우헤저소나무/갑을두른 듯/바람이슬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날공활한대/구름업시높고/밝은달은 우리가슴/일편단심일세 四 이기상과이마음으로/님군을섬기며/괴로오나 질거우나/나라사랑하세 후렴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길히보전하세

『찬미가』에서 제1장은 국가(國歌)의 지위를 갖고 있다. 물론 공식적인 국가는 아니다. 윤치호가 『찬미가』내에서 국가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 노래는 ‘황상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일명 ‘황제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대한 데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독립 부강할 것을 염원한다는 것이다. 황제와 나라를 함께 기리며 그 바람을 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기독교 신앙과 충군애국의 정신이 접합되어 있는 것이다. 1절의 마지막 표현 ‘독립 부강’은 노래가 지향하는 바를 또렷하게 표현한다.

이 노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한다. 2절에서 ‘룡홍강’이 쉬지않고 흐르고 ‘금강천만봉’이 날빛찬란하다는 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 ‘룡홍강’은 함경남도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으로서 조선 태조(太祖)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 ‘금강 천만봉’은 우리나라에서 기릴 만한 자연 풍광을 가진 장소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풍광을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3절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수확이 풍부한 땅을 연관시켜 우리나라를 ‘아세아 락토’로 소개했다. ‘아세아’라는 지역명이 나온 것은 ‘세계’를 염두에 두고 유럽이나 아메리카와 대비한 지리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는 ‘이천만’ 동포가 사육을 버리고 임금과 나라에 보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윤치호는 당시 인구를 ‘이천만’이라고 여긴 듯하다. 민족의 의미로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은 임금과 나라에 은혜를 받았다는 전제를 두고 개인의 욕망은 후순위에 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찬미가』의 모든 찬송에는 ‘ㆍ’가 없다. 윤치호

는 자신의 국어학 식견을 바탕으로 ‘ㆍ’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답ᄃᆞᆫ세’로 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실수로 표기한 듯하다.

제14장은 오늘날 ‘애국가’와 거의 비슷하다. 인쇄된 ‘애국가’ 중 가장 앞선 자료다. 이 ‘애국가’를 제1장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제1장의 제목은 나라 이름 ‘KOREA’인데 비해 제14장은 ‘PATRIOTIC HYMNS’다. 국가(國歌)와 애국가(愛國歌)를 구분한 것이다. 즉, 국가는 제1장 하나이며 애국가는 제10장, 제14장이다. 제1장에서 ‘룡흥강/금강산’이 나왔지만 제14장에는 ‘동해/백두산’이 나왔다. 전자에 조선 황제의 표지가 갖든 것에 비해 후자는 그러한 표지가 없다. 대신 제14장 2절에는 ‘남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노래하는 위치를 가리킨다. 즉 화자가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한양 혹은 서울에 있다는 것으로 나라와 정치의 중심지는 한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제1장과 같이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4절에는 ‘이괴상’과 ‘이마음’으로 ‘님금’을 섬기고 ‘나라사랑’하자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괴상’은 2절의 “바람이슬불변함”을, ‘이마음’은 3절의 “일편단심일세”를 받고 있다.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임금과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충군애국’의 정신의 강조다.

다음으로 제10장을 살펴보자. 제10장은 「무궁화가」로 알려졌으며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에 그 가사가 소개된 바 있다. 그 외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30일자,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자에 소개되어 있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A Mugunghwa song and PATRIOTIC HYMN III

「무궁화 노래」,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테+ PATRIOTIC HYMN NO. III./TUNE AULD LANG SINE
一 성조 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슈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ᄃᆞᆫ세 二 위국 ᄃᆞᆫ 열심익기 복악 곱치 놓고 충군 ᄃᆞᆫ 일편 단심 동히 곱치 곱허 三 천만인 오직한 무음 나라 사랑 ᄃᆞᆫ야 스롱공상 귀천 업시 직분만 다 ᄃᆞᆫ세 四 우리 나라 우리 황데 황천이 도으샤 군민 동락 만만세에 태평 독립ᄃᆞᆫ세	一 승자신손 천만년은 우리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도난 우리본국일세 후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二 애국하난열심의기 복악갓치놓고 충군하난일편단심 동해갓치곱허 三 이천만인오직한맘 나라사랑하야 사롱공상귀천업시 직분만다하세 四 우리나라우리님군 황천이도우샤 국민동락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우선 ‘무궁화가’에서 주목할 점은 제14장과 후렴이 같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애국가’의 후렴이 ‘무궁화가’에 맨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제10장의 ‘무궁화가’는 『독립신문』의 ‘무궁화가’와 그 가사가 온전히 같지는 않다. 눈에 띄는 차이는 ‘오백년’이 ‘천만년’, ‘천만인’이 ‘이천만인’, ‘황제’가 ‘님군’, ‘군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찬미가』의 초판 연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1908년 재판본의 간행 연도를 염두에 두고 따져보자. 『찬미가』에는 ‘조선’이란 나라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오백년’이란 구체적으로 조선이 점유한 세월을 지우고 ‘천만년’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내세웠다. ‘황제’는 대한제국의 황제다. 그것을 소거하고 ‘님군’ 즉 일반 명사인 ‘임금’을 내세웠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 1897년 5월 27일자에 고종이 ‘황제’라고 불리며 얻는 것은 “공허한 호칭과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경멸”이라고 썼다.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황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1장에 ‘황상 폐하’라는 용어가 있기에 이 해석을 완강히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용어를 고친 것에 의도성을 부여하면 ‘황제’와 ‘임금’이라는 명칭 사이에서 윤치호가 고민하였다는 점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군민’을 ‘국민’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입헌 군주제로서 근대 국가 체제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천만인’이 ‘이천만인’이 되었다. 십여 년 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³ 앞서 ‘오백년’을 ‘천만년’으로 한 것은 시간과 역사를 추상화한 것이라 했는데 이 경우는 과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는 만큼 한껏 숫자를 올려잡은 것이다.

1절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은 “임금의 자손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찬미가』에는 ‘승자신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자신손’의 오기로 보인다. 왜 ‘성’을 ‘승’으로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2절에서 애국의 ‘의기’를 북악산이 높은 것에, 충군의 ‘일편단심’을 동해가 깊은 것에 비유했다. 3절에서는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을 다하자는 다짐을 담았다.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따라 귀천(貴賤)을 두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4절에는 “우리님군 황천이도우사”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황천’은 ‘황천(皇天)’으로서 ‘절대자’를 뜻한다. 신이 우리 임금을 도와달라는 바람을 드러낸 것인데 제1장, 제14장처럼 기독교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연결시킨 표현이다.

요컨대 윤치호의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류는 국가와 애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선 왕조의 특징을 담은 제1장은 당시 실제 국가로 쓰였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김을한은 1904년에 영국 군함이 제물포 항에 들어왔을 때 고종의 명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김을한, 1982) 그것이 이 제1장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없이 제14장 애

3) 광무 10년(1906년) ‘內務部調査’는 5,793,976명, ‘警務顧問部調査’는 9,781,671명이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통계표에는 12,934,28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편차가 크다(朝鮮總督府 編, 1927:92). 대체적으로 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가가 국가로서 불리고 있다. 특이할 점은 세 곡 모두 충군애국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기독교 신앙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계가 지니고 있었던 정서와 신앙의 특징을 반영한다.

IV. 윤치호의 『찬미가』의 성격과 특징

윤치호의 『찬미가』에는 문명이 발달한 부강한 나라와 기독교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윤치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찬미가』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찬미가』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찬미가』의 제14장에 주목을 하고 현행 ‘애국가’ 작사가가 윤치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논자는 『찬미가』의 구성 특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효백은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애국가 세 편을 수록한 『찬미가』가 “얼핏 보면 대단히 독창적인 것 같지만 일본 기독교 협회에서 펴낸 1903년 『讚美歌』의 체제와 구성을 본떠 엮어낸 것”이다. 이 『찬미가』는 감리교파 목사 벳쇼우메소스케(別所梅之助, 1872-1945) 등 4인에 의해 창작 편집되었고 일본 제국 해군 군목 오자키 히로미치(和田秀豊) 등이 방역(邦譯)했으며 1931년판 『찬미가』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 전국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찬송가에 일본의 「기미가요(君が代)」, 「명치송(明治頌)」, 「부상가(扶桑歌)」 3곡의 애국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강효백, 2021:254). 또한 메이지 시대 대표 창가 「반딧불의 빛(蛍の光)」(1881)의 곡조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이런 점에서 강효백은 윤치호의 『찬미가』 구성은 일본의 『讚美歌』(1903)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미가』와 그것에 수록된 「애국가」를 왜색이 깃들여 있다고 평가 절하한다.(강효백, 2021:62) 덧붙여 강효백은 『찬미가』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가들도 당시 200여 수의 ‘막말애국가(幕末愛國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강효백, 2021:64) 이러한 강효백의 지적은 흥미롭다. 여러 연구자가 애국·민족 의식과 기독교의 결합이라고 상찬한 윤치호의 『찬미가』 구성이 일본에서 1903년에 간행한 감리교 찬송가집 『讚美歌』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애국가, 국화에 관한 노래가 들어있다는 사실마저도 같다.

임진택과 박재순은 윤치호가 『찬미가』 애국가의 작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진택은 애국가의 작사자를 가리는 자리에서 ‘역술(譯述)’의 의미를 따져 묻는다. 『찬미가』에 수록된 세 곡의 애국가는 윤치호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12곡의 찬송가처럼 편집과 단어 바꾸기 등의 가필을 한 정도

라는 것이다(임진택, 2020:170). 박재순은 독립협회가 해체된 1898년 이후 윤치호는 애국 계몽 주제의 노래를 지은 일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당시 세계 질서상에서 그는 일본의 지배를 필연으로 받아들였기에 애국가를 지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박재순, 2020:60).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유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우선 『찬미가』의 12곡의 찬송가 가사는 기존 번역의 ‘가필’ 정도를 한 것이라는 임진택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12곡의 찬송가 가사와 기존 찬송가 가사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윤치호가 직접 번역한 찬송가도 상당수다. 또한 박재순의 1898년 이후 윤치호 행적에 대한 지적도 옳다 할 수 없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윤치호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대한 자강회 활동을 하는 등 1900년대 애국 계몽 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찬미가』의 구성 비판과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윤치호가 친일 지식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일본의 『讚美歌』(1903)와 그 구성과 체제가 같고 역술한 저자가 윤치호라고 하여 『찬미가』 자체가 친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윤치호의 『찬미가』의 노래들은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송도의 한영서원에서 교육용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한영서원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운 사립학교로서 기독교 선교와 일제에 대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영서원과 비슷한 설립 목적을 지닌 배재학당과 관련한 기사에 마침 배재학당 학생이 ‘무궁화가’를 부른 대목이 있다.

A. 비지학당 학원들이 무궁화 노리를 불으는디 우리 나라 우리/님군과 빅성이 헛그지로 만만세를 길거허야 태평 독립 허여 보세 하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초아 병창 허더라 (중략) 비지 학당 학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노리를 불으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초아 병창 허더라(『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 강조는 인용자)

B. The Paichai boys sang a song “National Flower” which was composed by the poet laureate of Korea Mr. T.H.Yun, for the occasion. They sang it to the tune of “Auld Lang Syne” accompanied by Mrs. M.F. Sarenton on the organ. (중략) The Paichai boys then sang the national hymn “Korea” in the tune of “America” or “God Save the Queen.”(『THE INDEPENDENT』 1897년 8월 17일)

조선왕조의 505주년 기념식이 독립협회 후원 아래 독립협회 회관에서 1897년 8월 13일에 열렸다

(『윤치호 일기』 1987년 8월 13일). 이 내용에 대한 기사로서 A는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B는 같은 날 『독립신문』 영문판이다.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 를 불렀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그 날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A에 노래 가사인 듯한 구절, “태평 독립하여 보세”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무궁화 노래」와 『찬미가』 10장 ‘PATRIOTIC HYMN No. Ⅲ’의 마지막 절 가사와 같다. 영문판 기사 B에는 ‘National Flower’를 ‘Mr. T.H.Yun’이 작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영문판 기사는 곡조도 소개하고 있다. ‘National Flower’의 곡조는 “Auld Lang Syne”이다. 『찬미가』의 제10장의 곡조와 같다. 둘이 같은 노래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근거다. 한편 영문판 기사는 또 다른 노래 “Korea”를 “America” 혹은 “God Save the Queen”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즉 『찬미가』 제1장과, 제목과 곡조가 같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찬미가』의 애국가들은 1897년 즈음에 이미 있었던 노래들이며 조선 왕조의 기념식에 불리었고, 윤치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래였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고종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행사의 순서다. 『독립신문』에는 이와같이 각종 행사를 시간순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종종 실린다. 다음의 인용문도 그런 기사 중 하나다.

대조선 서울 야쇼 교회에서 누일 대군주 폐하 탄신 경축회를 후는디 아침에는 각 레비당에서 대군주 폐하와 조선 인민을 위하여 하느님의 찬미와 기도를 홀터이오 오후 네시에 모화관에 모도 모혀 이국가로 노리하고 명망있는 사름들이 연설도 홀터이라 무론 누구든지 이날을 경히 생각후는 이는 모도 모화관으로 와서 고티 이국가로 노리하고 연설도 들으시오(『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⁴

인용문은 아침과 오후에 열린 행사를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아침에는 예배당에서 고종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한다. 이 행사는 주체가 ‘서울 야쇼 교회’다. 이 교회는 서울 새문안 교회로 추측된다.(윤경로, 2019:127) 오후에는 ‘모화관’에서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하루 일정에 ‘찬송가’와 ‘애국가’가 한 데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찬미가』의 애국가와 찬송가의 조합은 이러한 행사 식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새문안교회에 관련한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러한 조합은 낯선 것이 아니다. 충군애국

4) 『윤치호 일기』 1897년 8월 13일자 일기에는 조선의 개국 505주년 기념식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독립협회 후원 아래 독립협회 회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식순은 다음과 같다. 1. 배재학당 학생들의 송가(頌歌)/2. 초대 회장 안경수의 연설/ 3. 이채연의 연설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의무”/ 4. 배재학당 학생들의 노래 “국화(國花)"/5. 아펜젤러 목사의 연설 “재류 외국인들의 의무”/6. 서재필의 연설 “조선의 발전”/ 7. 배재학당 학생들의 노래 “조선”/8. 나의 연설 “우리가 기념하는 날”/ 9. 다과

(忠君愛國)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하는 모습을 굳이 일본의 『찬미가』에서 따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음력 이월 팔일은 우리황태조 대한의 천추 경절인고로 정부에서 각부와 각학교에 경비를 나리섯
논디 비치학당에도 또한 은화 룡원을 반하 후신지라 본 학당은 특별이 다른 학교와 고지 아니후
여 예수교를 주장 후는 학당인디 그날이 못춤 레배일인고로 경축홀 물건을 예비치 못하고 그
흔날 레식을 힝홀시 태극 국기를 놓히 돌고 각식 등을 학당 압헤 좌우로 길게 버려 들었시며 저
녁 날곱시에 학도들이 일제히 모히여 만세를 부르고 국가를 노리 후는디 등불이 휘황후여 늦고흔
지라 기도 찬미 후후에 서로 경축홀목역을 연설 후는디 학도중 일본 친구가 잇셔서 또한 요흔 말
씀으로 우리 나라를 위후야 경축후니 사름들이 다 쟈미 잇게 듯더라 실과봉 빅여기를 준비 후었
다가 후히들로 브터 쇼년 쟈지 논호아 주고 깃분 무옴으로 파 후니라(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대한그리스도회보』 1899년 3월 22일 「내보」란에 실린 기사다. ‘천추 경절’ 즉, 황태자 생일에 대한 소개다. 정부에서 황태자 생일을 기념하여 배재학당에 경축비를 내리고 배재학당은 그것을 기념하여 예식을 했다는 기사다. 행사의 내용은 고종 생일 때와 비슷하다. “국가를 노리”하고 “기도 찬미”를 한다는 것으로 국가와 찬송가 부르기가 한 행사에 함께 있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단체, 즉 교회나 미션 스쿨에서는 충군·애국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닌 하나로 묶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으로 설사 윤치호의 『찬미가』가 일본의 『찬미가』의 형식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찬미가』를 왜색이 깃든 친일 찬송가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라의 안녕을 신앙에 기댄 체제 자체가 마음에 와 닿아 그러한 형식의 찬송가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치호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한 것을 지목하여 그 이전의 삶에서 친일과 관련한 행적과 생각을 찾고자 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찬미가』를 간행할 당시 윤치호는 조선이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한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분통해 했다. 1907년 7월 28일, 캔들러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윤치호는 “일본은 압도적인 힘으로 조선을 억누르고 합니다.”고 하며 일본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했다(윤경남, 2020:178). 윤치호가 역술하고 편찬한 『찬미가』의 형식은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기울어가는 국운(國運)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것을 쇄신하고자 하는 바람이라는 배경에서 나왔다. 이는 당시 윤치호가 간행한 공적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찬미가』 즈음에 발표된 윤치호의 글과 저서를 살펴보자. 『대한자강회월보』(1906년 1월)에 실린

「議會通用規則」은 1898년 윤치호가 단행본으로 낸 것을 다시 재수록한 것이다. 「의회통용규칙」은 미국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Henry. M. Robert)의 *Robert's Rules of Order*를 초역한 것으로 “개화기 조선/조선인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공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 글이다. 윤치호는 독립협회에 1897년 7월부터 참여하였는데 독립협회를 일종의 토론회(debating society)로 조직하여 의회주의를 훈련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류충희, 2014:3-5) 그 조직을 만들고자 펴낸 글을 1906년 다시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은 그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윤치호는 이숙 우화를 담은 『우순소리』를 1908년에 대한서림에서 펴냈다. 이 책에서 윤치호는 71편의 우화를 실고 각 편의 우화 말미에 우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제12회 ‘보호국’에서는 새매에게 보호를 맡긴 비둘기들이 낭패를 당하는 우화를 실고 글 마지막에 “제가 제 보호 못하고 남의 보호를 엿지 밋으리오”라고 적었다(윤치호, 2022:59). 당시 을사늑약에 대한 풍자인데 그 어조가 매우 강하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우순소리』는 1909년 통감부가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1909년 통감부는 『우순소리』에 대해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윤치호의 친일 행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전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찬미가』를 간행할 당시 그는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찬미가』는 그 가운데 거둔 결실의 하나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살펴보았다. 『찬미가』는 당시 간행된 찬송가집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인이 펴낸 최초의 찬송가집이며 애국가 세 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찬송가집과는 다르게 『찬미가』는 기독교 신앙과 애국의 정신이 한 데 묶여 기독교 신앙과 찬송가가 어떻게 국가 만들기에 기여하려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윤치호 개인의 번역 특징을 볼 수 있다. 그의 번역 찬송은 이전 찬송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웠다. 한국인의 언어 감각으로 내용과 운율을 잘 살렸으며 전문적 신학 지식으로 본래 취지를 흐리지 않았다. 또한 ‘ㆍ’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어문학적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말 그대로 풍운아(風雲兒)의 삶을 살았다. 그는 1865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고 겪고 느낀 일을 평생 일기에 담았다. 국운이 기울고 나라가 망할 즈음인 1908년에는 『찬미가』 재판과 재담집 『우순소리』를 간행했고 1911년에 『영어문법첩경』을 간행했

다. 『우순소리』는 당시 언론에서 “애국 사상을 일으키며 독립 정신을 배양하는 비유소설”로 홍보했으며 일제 당국에 의해 출판이 금지당하기도 했다. 또한 1912년 ‘105인 사건’으로 피소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기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45년 일본 중추원 의원이 되었다.

그는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으며 협력하기도 했다. 『찬미가』(1908)에 대한 시각은 윤치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가 부강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개화 선구자의 결실이 될 수 있고 일본 찬송가집의 체제를 고스란히 본 따 만든 친일 지식인의 모방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미가』(1908)에는 ‘애국’과 ‘충군’의 내용이 담긴 가사가 수록되었고 그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그 내용에 값하는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찬미가』 체제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친 일본으로 채색되는 것은 아니다.

윤치호는 일기에서 민족의 문제를 신앙의 측면에서 자성적(自省的)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인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이희환, 1992 :193). 윤치호의 이후 행적을 감안하면 일견 당연하다 생각되는 식민 사관의 논리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이며 다분히 퇴영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나’와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가 확보된다는 희망적 전망으로 연결된다. 식민 사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논문은 근대 전환기에 간행된 윤치호 『찬미가』(1908)의 성격을 검토했다. 『찬미가』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집필한 저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 저자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실제 그 저서가 어떻게 독자에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찬미가』를 살펴보았다. 당시 『찬미가』는 충군·애국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된 텍스트이며 그 형식에 따라 활용되고 독자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윤치호는 방대한 분량의, 자신의 내면을 담은 기록인 일기를 남겼다. ‘일기’라는 장르의 글쓰기 성격을 심분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우리는 윤치호 개인과 일제 강점기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효백 (2021). **애국가**는 없다. 서울: 지식공감.
- 김병철 (1975).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乙酉文化史.
- 김영숙 (1998). **윤치호의 『찬미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을한 (1982). **좌옹 윤치호전**. 을유문화사.
- 노동은 (1995). **한국근대음악사**. 서울: 한길사.
- 류충희 (2014). 개화기 조선의 민會 활동과 「議會通用規則」-「의회통용규칙」의 유통과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67집. 1-32.
- 민경배 (1997). **한국 교회 찬송가사-한국 민족교회 찬송가의 편집사와 해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선희 (2016). 메이지 시대 창가와 일본 초기 기독교와의 상관관계. **日本文化研究**, 제58집. 109-135.
- 박재순 (2020). **애국가 작사자 도산 안창호**. 서울: 종문화사.
- 윤경남 편저 (2017). **좌옹 윤치호 평전**. 서울: 신앙과 지성사.
- 윤경남·민석홍 옮김. **우순소리**. 윤치호(1908). 서울: 곰시.
- 윤경로 (2019). **새문안교회100년사**. 서울: 교회역사자료편찬위원회.
- 윤치호 지음, 윤경남 편역 (2020). **개정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서울: 신앙과 지성사.
- 윤치호 (1908). 『찬미가』. 서울: 광학서포.
- 이희환 (1992). 개화기 윤치호와 기독교 개화 사상. 이만열 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pp. 190-201). 서울: 종로서적.
- 임진택 (2020).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장규식 (2001).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 조서운 (2018). 윤치호 번역의 『찬미가』(1908)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61집. 229-265.
- 朝鮮總督府 編 (1927). **朝鮮の人口現象**. 朝鮮總督府.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 (2011). **한국찬송가전집** 3권.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 독립협회(1897-1899). 『**THE INDEPENDENT**』. 서울: 독립신문사.
- 공립협회(1905-1909). 『**共立新報**』.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보사.
- 대한매일신보사(1904-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 대한매일신보사.
- 독립신문사(1896-1899). 『**독립신문**』. 서울: 독립신문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2014-2016). 『**윤치호 일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중심으로

The Protestant Hym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and the Making of Modern Nation State – Focused on *Chanmiga* 『讚美歌』(1908) Translated by Yun Chi-ho

조경덕 (평택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윤치호가 역술(譯述)한 「찬미가」(1908)를 통해 한국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가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과제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윤치호의 「찬미가」는 우리나라 찬송가집 역사상 초창기에 간행된 찬송가집이다. 기독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첫째, 곡이 15곡이 들어있는 소책자다. 같은 해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만든 찬송가집은 317곡을 수록하였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회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둘째, 개인이 만든 찬송가집이다. 개인이 1894년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집을 제외하고 다른 찬송가집은 대개 교파 찬송가 위원회가 만들었다. 그만큼 윤치호가 영어와 국어학에 관한 지식이 있어 가능했다. 셋째, '애국가'가 포함되었다. 15곡 중에 3곡이 '애국가'이다. 당시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선교사보다 한국인에게 더 강했다. 윤치호는 일제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섰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찬미가」의 민족주의 성격을 부정한다. 하지만 윤치호의 말년 행적으로 그의 전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윤치호는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찬미가」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자들은 「찬미가」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함께 노래하였다.

주제어: 윤치호, 『찬미가』, 찬송가, 애국가, 근대 전환기